광주·전남 1981~2005년 산업 구조 변화상

제조업 비중 '반토막' 산업지도 확 바뀌었다

25년전 16%서 8%로…서비스업 비중은 60% 달해

지난 1981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05년 현재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면서 특정업종 편중 및 규모 영세화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는 등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구조별 변화상(1981~2005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광주·전남의 총 사업체는 22만361개로 집계됐다.

이는 25년 전인 1981년(10만4천583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은 2005년 현재 13만703개의 서비스사업체에 총 53만3천709명이 종사하면서 전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각각 59.3%. 5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서비스업이 숙박·음식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돼 있는 데다 사업규모도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및 틈새시장 공략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전체 서비스업체 가운데 숙박·음식업이 33%(4만3천312개)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 22%(2만8천926개), 운수업 15%(1만9천58개) 등 개인 및 영세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종의 비중이 각각 '반토막' 났다. 광주의 경우 1981년 14.9%(4천922개)에서 2005년 7.9%(7천527개)로 떨어졌고, 전남도 1981년 17%(1만2천264개)에서 25년새 8.4%(1만487개)까지 전체 산업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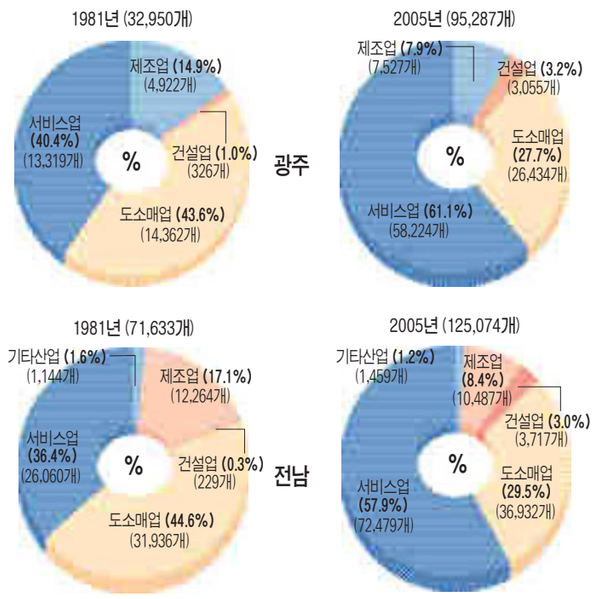
다만 광주·전남은 25년간 제조업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981년 당시 섬유·의복 등이 전체 제조업의 48%(2천374개)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14.5%(1천94개)로 줄었다. 반면 1981년 12%(604개)에 그쳤던 조립금속·기계장비는 2005년 38.3%(2천881개)로 늘어나는 등 기아차와 삼성전자의 효과를 반영했다.

이밖에 광주·전남은 도소매업의 비중이 1981년 44%(4만6천298개)에서 2005년 29%(6만3천366개)로 떨어진 반면 건설업의 비중은 0.5%(555개)에서 25년새 3%(6천772개)로 늘어나는 등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산업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변화



택지예정지구 개발행위 제한

6개월~1년 앞당긴다

보상금 부풀리기 차단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진다.

지금은 '지구지정일'이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공람일부터 지구지정일 사이에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개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지금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통상 택지개발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주민공람이 시작되면 개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토지 소유자들은 각종 개발행위에 들어간다.

'농지'에다 축사를 지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는가 하면 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땅과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는 방법도 자주 동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법인 10곳 중 1곳 '경고장'

광주국세청 성실납부 권고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법인 10개중 1개가 세원관리 문제 법인으로 경고를 받았다.

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월2일까지 정해진 2006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리와 관련, 관내 3만여개 법인중 10%에 해당하는 3천102개가 불성실 납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들 법인에 성실납부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거나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했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업체들도 포함됐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3천102곳중 609곳은 광주청이 자체조사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발표한 명단"이라며 "이번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인이 성실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1월중 광주 유통시장 매출

대형마트 〉 백화점

〈598억3,900만원〉 〈582억5,600만원〉

광주지역 대형마트가 매출에서 백화점을 추월하면서 유통업계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6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광주지역 백화점 총매출은 582억5천60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11.0%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 총매출은 598억3천90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전월대비 6.9% 늘어 백화점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월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문을 열면서 대형마트 매출이 급신장한데다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백화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코트 등 의류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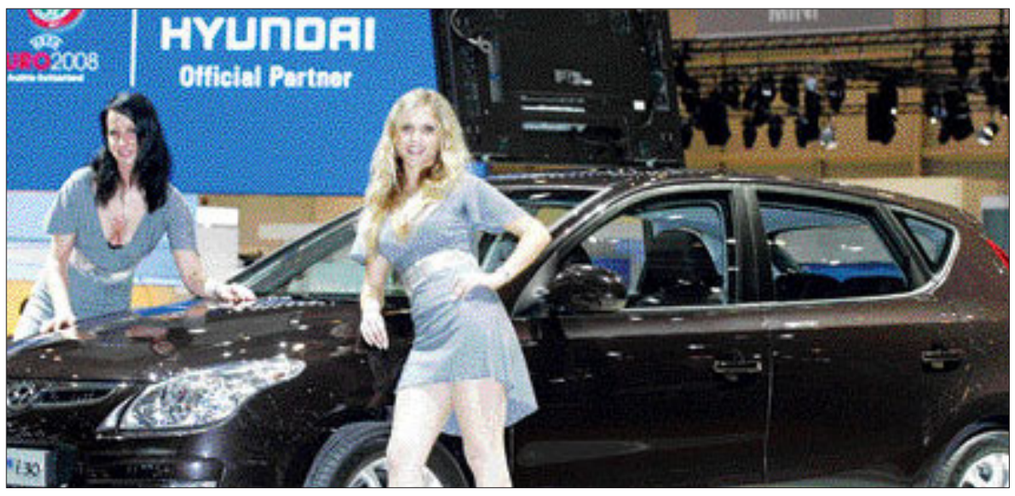
대형마트 판매액이 백화점을 추월한 것은 지난 1998년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액 조사 이후 이번이 4번째다.

2004년 6월 이마트 광산점이 문을 열면서 그해 7·8월 대형마트 판매액이 백화점을 앞섰고 2005년 7월과 2006년 7월 광주신세계 이마트 개점으로 7·8월 대형마트 판매액이 백화점보다 많았다.

현재 광주지역에 백화점은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3곳이며, 매장면적 1천평(3천㎡)이상인 대형마트는 빅마트 5곳, 이마트 4곳, 롯데마트 3곳, 마트앤마트 일곡점, 홈플러스 동광주점 등 14곳이다.

여기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이마트 봉선점이 문을 열 경우 이같은 매출 역전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기아차 유럽형 신차 현대기아차는 6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에서 열린 '2007년 제네바모터쇼'에 참가, 준중형 해치백 스타일의 유럽형 신차 'i30'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금호, 올 매출 20조·순익 1조 시대 연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올해 처음으로 매출액 20조원, 당기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연다.

또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양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산업이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 및 성장모델 개발을 통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1조 35억원, 영업이익은 36.4% 증가한 1조 7천147억원, 경상이익은 12% 늘어난 1조 4천788억원, 당기순이익은 10.6% 증가한 1조 95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 인수로 화학·타이어 부문, 운송물류부문, 건설·레저부문과 금융·기타부문 등 4개 부문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 향후 질적성장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술 아이디어 주고 받아 세계화 선도"

배지수 신임 이업종교류 광주·전남 회장

"신기술·신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 회원사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일 광주센트럴관광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 광주·전남연합회 제 15차 정기총회를 통해 8대 회장에 취임한 배지수(60·영진세라믹스 대표)씨는 "이업종간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서로 협력해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23개 단위 교류그룹과 397개 회원사들이 뚜렷한 공동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내화물 제조업체를 생산, 연간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영진세라믹스(함평)를 이끌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